하남시, 간접 흡연방지 캠페인 "흡연은 너와 나에게 모두 독"

최순용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10. 27. 10:59



하남시자원봉사자들과 보건소직원들이 금연 홍보캠페인을 하고있다=/하남시제공

하남/아시아투데이 최순용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난 26일 출근 및 등교시간대 학교정화구역(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에 달하는 구역) 및 버스정류소(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일대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봉사자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되어 창우초등학교 일대 및 근처 버스정류소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홍보물 배부, 금연 현수막, 또래 금연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피켓을 이용해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 정화구역에서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민의 날 행사, 학교문화예술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했으며, 또래 금연지도자 학생들과 함께 거리캠페인도 실시했다.

tnsdyd3387@naver.com

ⓒ'젊은 피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하남시 간접 흡연방지 캠페인 전개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 등록 : 2016-10-27 10:03 | 수정 : 2016-10-27 10:03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26일 출근·등교시간대 학교정화구역과 버스정류소(버스정류소로부터 10m)일대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봉사자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돼 창우초등학교 일대 및 근처 버스정류소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홍보물 배부, 금연 현수막 등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 정화구역에서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민의 날 행사, 학교문화 예술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했으며, 또래금연지도자 학생들과 함께 거리캠페인도 실시했다

하남시, 간접 흡연방지 캠페인 실시

학교정화구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캠페인 진행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승인 2016.10.27 13:46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하남시는 지난 26일 출근 및 등교시간대 학교정화구역(학교정문으로부터 50m에 달하는 구역)및 버스정류소(버스정류소로부터 10m)일대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봉사자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되어 창우초등학교 일대 및 근처 버스정류소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홍보물 배부, 금연 현수막, 또래 금연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피켓을 이용하여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 정화구역에서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민의 날 행사, 학교문화 예술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또래금연지도자 학생들과 함께 거리캠페인도 실시했다.